

Robert Vannoy , 구약 역사, 강의 28

© 2012,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요셉

덧글 열기

제가 주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일반적인 개요에 따르면, 이번 주쯤에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다소 앞서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미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셉(Joseph)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게 다음 분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는 다음 분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토론과 상호 작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토론이 많으면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느려집니다. 그런 다음 결국 물건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귀하의 관심사에 따라 이 수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F. 야곱... 3. 창세기 32장 브니엘에서의 야곱

4.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상실 우리는 4세에 있었습니다. F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3절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32장 브니엘에서의 야곱.”

4.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상실” 입니다. 나는 실제로 창세기 37장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요셉 자신의 지휘 아래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5.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전체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 각자에게 선언하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노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그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특정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물론, 이에 앞서 야곱은 지난 수업 시간 에 언급한 대로 요셉-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축복 공식화를 통해 여러분은 실제로 노아의 바람이나 야곱의 아들에 대한 바람 또는 바람 이상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축복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영감받은 선언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후손을 물려주세요. 이러한 축복은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러한 축복을 선포하면서 신성한 계시에 의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미래를 보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축복 - 창 49:8-12 각 장을 살펴보고 이 선언문을 각각 살펴보세요 . 그러나 나는 유다를 위한 8-12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요.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이다. 내 아들아, 너는 사냥감에서 돌아왔다. 그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눕습니다. 암사자처럼 누가 감히 그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열방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그는 그의 당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매리라. 그는 포도주에 그의 옷을 빨 것이며, 포도의 피에 그의 옷을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어두우며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리로다.” 10절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지만, 축복의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 구절이 장자의 예식이 유다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계열은 이제 유다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에 대해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그의 적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요.” 즉, 그는 적들을 굴복시키고 그의 형제들은 그의 우월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왕권에 대한 초기 언급 9 절에서는 그의 영광이 사자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이다. 내 아들이, 너는 사냥감에서 돌아왔다. 사자가 웅크리고 눕는 것 같고 암사자처럼 누가 감히 그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 이 문구는 우리에게 “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소유에게 오기까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 라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 이제 “홀” 은 왕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그 의미는 왕권이 유다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왕의 가계가 있을 것이라는 최초의 명시적인 표시를 여기서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나중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이 이끄는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는 실제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권이 일어나기 전에 오랫동안 그 땅에 있었지만 결국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예상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할 때 나중에 민수기 24장에서 다른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왕족을 봅니다. 신명기 17장에 이르면 미리 정해진 왕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나중에야 확립되지만, 왕권에서는 궁극적으로 아들로써 보좌에 앉을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미래의 위대한 메시아 통치자를 가리키는 제도가 확립됩니다. 다윗의. 그래서 왕권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암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권이 생기기 전에는 왕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왕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결코 요구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종류의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 자체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종류의 왕과 잘못된 이유로 갈망되는 왕은 다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언급입니다. 여기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홀'은 왕권을 상징한다.

암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서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보십시오. 당신은 왕권에 대한 개념이 그것으로부터 발전했다고 암묵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명시적인 언급입니다.

“실로” 가 올 때까지(?) - 창 49:10) 제가 NIV에서 읽고 있는 다음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에서 다릅니다. 두 번째 구절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입법자가 그 발 사이에 있지도 않다” 고 말하는데,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어로 어느 쪽으로든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NIV의 “통치자의 발 사이에 있는 지팡이” 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실로가 올 때까지” , 즉 “백성의 집합이 실로에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NIV에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가 오며 이방인의 순종이 그의 것이 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NIV에는 “또는 실로가 올 때까지 ; 아니면 조세를 바칠 사람이 올 때까지 .”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Keil이 쓴 창세기의 Keil과 Delitzsch 주석을 보면 그는 그것을 King James 번역으로 받아들여 “실로가 올 때까지” 라고

번역합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이 용어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한 후 그것이 아마도 그들이 실로라는 도시를 명명한 어근인 *shalom* 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법궤가 있던 땅에 들어갈 때의 장소이다. 아마도 그 뿌리에서 도시의 이름이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근의 뜻은 '조용하다', '안심하다', '안식을 즐기다' 이다. 실로라는 개념은 방주가 실로에 머물렀던 도시이다. 그러나 Keil은 실로가 안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식을 전달하는 자, 안식을 주는 분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실로가 이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은 실제로 안식을 가져오거나 짊어지는 메시아적 명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시아 의 칭호 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그는 우리가 실로를 메시아의 칭호로 여기며, 유대 회당 전체와 기독교 교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 단어의 문법적 해석이 불확실할지라도 그 뜻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족장이 여기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율법 수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메시야가 오실 때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상호텍스트적 연결. 21:27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표현을 고유명사로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 NIV 버전처럼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유명사나 제목으로 취하는 것이 16세기 이전 버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로를 메시아라는 칭호로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칭호라면 그것이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에스겔 21장 27절을 참조할 때 이 구절에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21장에는 27절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32절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다가오는 멸망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NIV는 이 책에 “하나님의 심판의 검 바벨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전파하라. 너는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희에게서 끊으리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멸할 것인즉 내 칼을 빼어 남에서 북까지 모든 사람을 칠 것임이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7절에 “그것이 오고 있다 !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0절에 “검이며, 날카롭게 다듬어져 살육하도록 날카롭게 하였고 번개처럼 번쩍이게 하는 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내 아들 유다의 흠을 기뻐하리이까? 칼은 그런 막대기를 모두 경멸한다.” 이제 거기에서 유다의 흠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 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심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글썄요, “검은 그런 막대기는 모두 멸시한다”

고 이 장에서는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시험이 반드시 오리라. 만일 칼이 멸시하는 유다의 흠이 장구하지 못하면 어찌하리이까?”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다시 보면, 이는 “흠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하는 창세기 49장 10절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에 더 내려가면 “ 바벨론 왕이 갈림길 곧 두 갈래 길에 서서 징조를 구하려 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고대 근동의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는 화살로 제비를 뽑을 것이며, 자기 우상들과 의논할 것이며, 간을 진찰할 것이다.” 간과 그 구성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오른 손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제비를 뽑으리니 그가 거기에 공성퇴를 세우며 도살을 명하고 함성을 지르며 성문에 공성퇴를 두리라” 등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너희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관을 벗고 면류관을 벗고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낮은 자가 높아지겠고 높아지는 자가 낮아지리라. 파멸! 파멸! 망하게 만들겠어! 그것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49:10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 그것이 정당하게 속한 사람에게 오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주겠다. ” 이제 NIV는 창세기 49장 1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흠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속한 자에게 오시리니 열방의 순종이 그에게 속하리라.” 따라서 에스겔 21:27의 표현은 창세기 49:10의 표현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겔서의 내용이 창세기 49:10의 내용보다 더 긴 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히브리어 실로(*Shiloh*)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 Brown-Driver-Briggs *히브리어 사전* 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shelu* , “그것이 있는 자가 온다” 또는 “그에게 속한 것이 온다”와 같은 명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asher* 와 *lo* 가 결합된 것입니다. ‘. *Asher* 는 “어떤”이고 *lo*’ 는 “그에게” 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 은 이 단어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lo*’ 와 결합된 *asher* 의 단축형입니다 . 여기 에스겔서 21:32; 당신은 “... 올 때까지... *아셀 로*’ ”를 갖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에게 있는 것 , 정당하게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접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 번역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NIV를 지지하고 에스겔 본문이 창세기 49장 10절의 용어에 대한 평행이자 일종의 확장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9장 10절의 실로는 *고유* 한 명칭이 아니라 “그것이 속한 자” 라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실로가 온다” 로 번역하든, “그것이 속한 사람이 온다” 로 번역하든 그 진술의 메시아적 성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이 그 사람을 실로라고 부르든 “홀이 속한 사람” 이라고 부르든, 홀이 정당하게 속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레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의 주석인 신성경 주석 개정판에서 그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유다가 속한 자, 즉 왕권의 홀이 올 때까지 계속 왕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0 절은 구속사의 움직임의 맥락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제 유다 지파인 야곱에게까지 약속이 좁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전개에 왕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윗 왕과 그리스도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님]

다윗의 왕좌에 앉은 사람의 실제 소유에는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선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기원전 586년과 그리스도의 출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다윗 왕의 역할을 맡아 매우 정치적인 방법으로 로마인들을 추방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확실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분은 적어도 임시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국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 확립되었는지, 아니면 재림 때 확립되기를 기다리는데 관한 것 입니다 . 초림때 확립된 것이요, 영원한 나라 외에는 그 완전한 실현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림 때 확립되지 않았고 모든 면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며 충만함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요점은 지속될 지속적인 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네 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다윗의 약속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Shiloh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으며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재판관 시대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법궤가 있던 곳으로,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실로의 위치조차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실로가 올 때까지”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에스겔의 비유에서 “실로에 오는 자” 보다는 “권리 있는 이가 올 때까지” , 즉 둘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G. 요셉 1. 창세기 37:2 - 톨레도

알겠습니다 , G. 시트에는 “요셉”이 있고 1. 창세기 37:2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또 다른 구조적 구분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절에서 “이것은 야곱의 족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문구의 히브리어를 다소 모호하게 만드는 NIV에서 나온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이 야곱의 족보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문구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그것은 *톨레도트* (“세대”)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섹션이 있고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것이 Jacob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계통이 민족이나 국가로 확장되는 새로운 기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초점이 단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것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확실히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국가의 형성을 위해 준비한 사건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일과 기근이 닥치는 일, 결국 온 가족이 거기에 남겨두었던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이집트 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국가가 되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그 430년을 이집트에서 보냈습니다.

2.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 알겠습니다 . 2. 는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 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요 시트에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장을 하나씩 다루지는 않고 그의 요점 중 일부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Schultz는 37페이지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논의하면서 요셉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나는 요셉 이야기가 모든 문학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에 관한 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서사를 문학적, 예술적 가치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서사 중 일부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집사와 빵 굽는 사람과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이 들어오고 형제들 사이에 모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트에 37-그가 이집트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9-41장: 노예에서 통치자로, 그의 투옥, 꿈의 해석.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바로의 떡 굽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바로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 바로는 꿈을 꾸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거기 감옥에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부름을 받아 살진 일곱 암소와 파리한 일곱 암소와 시든 곡식과 풍년에 관한 꿈과 일곱 해의 풍년과 일곱 해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합니다. 그분은 파라오에게 7년 풍년 동안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다시 요셉에게로 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반대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문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결과도 없지만 잊혀진 사람에게는 큰 결과가 따릅니다.

씨. 요셉의 형제들과의 만남 - 창 42-45 장 좋습니다. C.는 “요셉의 형제들과의 만남, 창세기 42-45장”입니다. 이집트로의 첫 번째 여행에는

베냐민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라헬은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고, 요셉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끝에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은 요셉을 잃고, 이어서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은 출산 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벤자민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 머물며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 물어보고 알아냈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그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때, 야곱은 베냐민이 갈 수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 유다는 베냐민에게 확신을 주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고센이 그들에게 살 곳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축복이 있고, 야곱의 죽음과 가나안 장사도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장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나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러한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것의 특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꿈

모형론적인 해석은 요셉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의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특정한 모형론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멀리까지 가지고 가는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이것은 요셉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일곱 살 된 청년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에 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쁜 정보, 밀고자 또는 일종의 고자질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 꿈을 들으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은 일어서고 너희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당신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물론 이야기 후반부에서 그들이 절을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꿈이 무엇이냐? 네 어머니와 나와 네 형제들이 과연 와서 네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느니라 .”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의 태도는 형들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어질 꿈에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의 태도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방식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약에서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셉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지닌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삶에는 유형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덜란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NH Ridderbos 라는 사람이 앞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Herman Ridderbos는 *The Coming of the Kingdom* 과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를 썼습니다 . NH Ridderbos는 구약성서 학자였으며 NH와 Herman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학자이기도 한 아버지 J. Ridderbos 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으며 둘 다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NH는 내가 공부했던 구약성서 프리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신약에서는 요셉을 모형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굴욕과 이후의 승영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치료법은 상세한 대응을 찾는 데 있어서 우화에 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이 바로 그가 물러나는 곳이며 나는 그것이 건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 사건의 의의 유다는 약속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일시적으로 두각을 나타냄 3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 사건의 의의” 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약속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일시적으로 탁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에서는 레아와 라헬 사이의 긴장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아의 처음 네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라헬의 아들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애굽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창세기 37장 27절에서 요셉을 죽이는 대신 팔자고 제안한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결국 우리 형제니 우리의 살과 피입니다.” 르우벤은 정말로 그를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려 하되 그의 생명을 빼앗지 말자 하더라” 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를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29절)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형들에게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어디로 향하리이까 하매 따라서 르우벤은 실제로 그 일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갈등의 어느 정도는 어린이들에게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 베레스 계다가 , 요셉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에서 일종의 괄호인 다음 장, 38장에서 유다의 행동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약속의 계열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8장은 유다의 아들의 전 부인인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아들인 그녀의 남편이 죽었고 어느 시점에서 그녀에게는 다른 남편이 없었으며 유다의 다른 아들은 그녀에 대한 레위인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길에서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착각하고 그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길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나로 너와 동침하게

하라 하니” 24절, “석 달 후에 유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매춘을 하여 지금 임신 중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가 말했다. ’ 그를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녀는 끌려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갈을 보냈다. ’ 이 물건 주인으로 인해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으로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녀와 자지 않았습니다.” |

베레스와 그리스도의 계열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38장 29절을 보면 “ 손을 거두니 그 동생이 나오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헤어졌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베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홍색실 있는 그의 형이 나오매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흥미로운 점은 베레스가 유다에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8-22절을 보면 룻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 의 아버지요 헤스론 은 램의 아버지요 헤스론 은 램의 아버지니라” 암미나답 의 아버지 ,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 나손은 살몬의 아버지,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라 .” 그래서 David까지 내려가는 줄에서 Perez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3

절, “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의 아버지요 그의 어머니는 다말이요 .” 따라서 이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종류의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속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렸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하고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군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다음 분기 이 시점에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러한 사건의 중요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약속과 예언을 성취할 사람은 유다이지만 요셉은 일시적으로 탁월해졌습니다.

코너 그라프(Connor Graff)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편곡
 Ted Hildebrandt
 의 대략적인 편집 Chelsea Kapes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